中 근대불교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주목! 학술서

김영진 교수의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




장타이옌


량치차오


후스


양런산


어우양징우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근대는 역동적 공간이었다. 서구의 산업 문명과 더불어 문화 · 학문 전 분야서 동양과 서양이 교차됐다. 불교도 다르지 않았다. 서양의 학문 방법론이 유입되면서 중국의 많은 불교학자들은 부조화를 경험했다. 그들은 처음 접한 서양의 불교 연구법을 사용하여 전통의 일부였던 불교를 연구하고 설명해야 했다.

김영진 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부 교수가 최근 내놓은 〈중국 근대불교학의 탄생〉은 근대 공간에서 중국의 불교학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추적하는 연구서다.

책은 크게 문헌학, 역사학, 철학의 세 갈래로 중국 근대불교학의 형성 과정을 추적한다. 또한, 형성에 있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상가와 학자들도 다루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불교를 혁명 종교로 각색한 장타이옌(章太炎), 불교에 계몽의 옷을 입힌 량치차오(梁啓超), 백화문 연구에서 선종 연구에 도달한 후스(胡適) 등이다. 저자는 이들의 노력으로 탄생한 중국의 근대불교학에서 동아시아 전통 종교와 학술이 '근대'라는 시공을 맞아 기꺼이 감내한 자기 변혁과 동서(東西) 학술의 교차가 빚은 창조성을 확인하고자 했다.

김 교수의 연구서는 매우 친절하다. 근대 서구 학문의 방법론들이 기존의 불교학과 어떻게 충돌하고 융합돼 가는지를 분야와 시기별로 잘 조망하고 있다.

근대 시기로 접어들면서 서구 불교학을 전면적으로 수용한 일본과 달리 근대 초기 중국 불교학자들은 전통적인 입장과 근대적인 태도를 공유했다. 일부 학자들은 전통적인 교감학을 통해서 불교 문헌학을 진행했고, 1920년대부터 일부 학자들은 서구의 불교 문헌학을 직접적으로 학습하고 활용했다.

특히 저자는 근대 불교학의 초석을 놓은 문헌학 방법론은 실은 불교가 근대시기 정치사상으로서 철학으로 작동하게 된 바탕을 마련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그것은 불교 지식을 생산하고 가공하고 또한 확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제1부 '불교경학과 문헌비평'은 서양 근대불교학과 불교문헌학이 중국에 전래된 과정, 중국 불교 지식의 확장과 유통 과정, 그리고 전통 문헌학 방법론의 불교 연구 도입까지, 불교와 문헌학이 만나 새로운 학문적 흐름을 만들어낸 과정을 다룬다.

근대기 서양 학문 방법론 유입

학자들 전통 · 근대적 태도 공유

문헌 · 역사 · 철학으로 흐름 조망

장타이옌 등 사상가들 다루며

東西학문 교차되는 과정 확인

중국 근대 불교학은 문헌학만으로 형성되지 못했다. 저자가 주목한 두 번째 키워드는 역사학이다. 그는 량치차오, 후스 등 근대 학자들의 역사학 방법론을 통한 불교사 연구를 되짚어본다.

특히 주목할 사상가는 계몽 사상가로 잘 알려진 량치차오다. 최초로 근대적 역사학 방법론을 불교 연구에 도입한 량치차오는 고문과 현대문 사이에 발생한 차이를 번역하는 '역고(譯古)'의 방법을 통해 불교 경전의 역사를 되짚어냈다.

이후 선종의 역사를 헉슬리 식 불가지론의 입장에서 연구한 후스(胡適), 정착기의 초기 중국불교사를 사상사적으로 연구한 탕융퉁(湯用彤), 비교언어학을 통해 중국불교를 정리한 천인추에(陳寅格)와 전통적 방법론으로 불교사를 비롯한 종교사 연구를 행한 천위안(陳垣)으로 이어지면서, 역사학의 방법론은 불교사를 서술하여 근대에 불교가 있어야 할 곳을 모색하는 또 하나의 길잡이가 됐다.

제3부 '불교철학의 출현과 교리논쟁'은 서양 철학을 만나면서 중국 근대불교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조명한다. 저자는 새로운 불교철학이 민중 계몽과 사회 개혁을 일으켰던 당시의 사회상을 언급하며 사실상 '철학'의 유입이 중국 근대불교에 가장 근본적인 변화를 불러왔음을 역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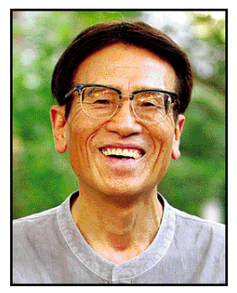
21세기 중국 불교학에 대해서도 저자는 조심스런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 교수는 "최근 중국 불교학계는 국학 차원을 벗어나 인도 · 티베트 · 동남아 · 일본 불교 등으로 연구 분야를 확대하고 있다"면서 "국가 위상 제고를 위해 사용하든 국민 통합의 이데올로기로 사용하든 불교학은 중국에서 중요한 학문 영역임은 분명하다. 또한 불교 연구의 세계화라는 차원에서 연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학 이론 권위자 이승훈 시인 별세

16일 숙환으로… 발인 19일 시인협회장

선불교 · 포스트모더니즘 결합

한국적 탈근대주의 지평 열어



한국 시학 이론의 권위자이자 원로 시인인 이승훈 한양대 명예교수〈사진〉가 1월 16일 오후 11시 20분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76세.

1942년 강원도 춘천에서 태어난 이승훈 교수는 1962년 4월 박목월 시인의 추천을 받아 〈현대문학〉으로 등단해 1972년까지 〈현대시〉 동인으로 활동했다. 박사 과정 중이던 1980년에 한양대 인문대 국문과 조교수로 부임해 2008년 정년퇴임하기까지 교편을 잡았다.

이승훈 교수는 한국의 모더니즘을 대표하는 시인이자 이론가였다. 〈모더니즘시론〉, 〈포스트모더니즘시론〉, 〈해체시론〉 등의 저작을 통해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시학이론을 정립했다.

또한, 법호가 방장(方丈)일 정도로 독실한 신심을 가진 불자였던 이승훈 교수는 선과 시학, 포스트모더니즘을 결합시키는 연구를 평생의 업으로 삼았다. 이는 그가 보여준 저작들에서 잘 드러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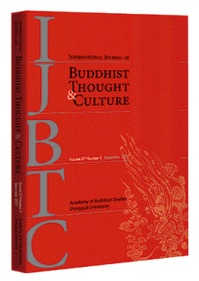
기호학의 시각에서 선사들의 공안을 해석한 〈선과 기호학〉, 선의 시각에서 아방가르드 예술을 해석한 〈아방가르드는 없다〉, 선시를 중심으로 하이데거 철학을 해석한 〈선과 하이데거〉 등을 통해 선의 시학과 시 쓰기를 모색했다. 이런 공로로 이승훈 교수는 2013년 현대불교문학상, 2016년 만해 대상 문예부문을 수상하기도 했다.

한편,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특2호실)에 마련됐으며 장례는 19일 아침 9시에 한국시인협회장으로 치뤄졌다. 유족으로는 부인(최정자 여사)과 아들 상규(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딸 다영, 며느리 김문정(일산 명지병원 의사), 사위 김성한(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 교수) 씨 등이 있다. 신성민 기자

인류 · 종교 · 예술학서 본 사리 신앙

불교학 영문 저널

IJBTC 27권 2호 발행



불교 의례의 핵심인 사리와 사리함, 그리고 그 안에 담긴 신앙과 문화에 대한 국제적 연구 성과를 담은 학술지가 발간됐다. 동국대(총장 보광)는 최근 불교학 영문 저널인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 Culture (이하 IJBTC)〉 27권 2호를 발행했다.

'불교 의례의 핵심: 사리, 사리함 그리고 불상(The Heart of Buddhist Ritual: Relics, Reliquaries, and Icons)'을 특집으로 진행한 이번 IJBTC에는 관련 특집 논문 4편과 연구논문 4편, 관련 서평 2편이 실렸다.

논문 참여 학자들은 하버드대, 콜롬비아대, 교토대, 북경대 등 대표 연구자들로, 국내에서는 서울대와 이화여대 소속 연구자들이 참여했다.

또한 특집 논문 이외에도 '문헌학과 사본 연구', '중론(中論)의 이제설의 중도에 대한 연구', '불교 논사들의 메이지 일본에서의 기독교와 공화주의에 대한 비판 연구', '한국의 사례를 통한 동아시아 불교 의례 연구 재검토' 등 다양한 논문들이 게재됐다.

정승석 동국대 불교학술원장은 "인류학과 문화연구의 영향으로 불교연구에 있어 방향 전환이 이루어졌고 불사리(佛舍利)에 관한 연구도 활발해졌다"면서 "이번 호의 논문들을 통해 교리, 인류학, 종교학, 예술학 측면에 있어 불사리 등 불교의 유물과 문화에 대한 비판적 연구를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IJBTC는 국내 유일의 영문 불교학 전문학술지로 김종욱 동국대 교수와 리처드 맥브라이드 하와이 브링엄영대 교수가 공동 편집장을 맡고 있으며, 인도 · 미국 · 태국 · 대만 · 영국 등 9개국 해외 학자가 편집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2010년 한국연구재단의 등재학술지로 선정됐으며, 현재 연2회(6월, 12월) 발간된다. 신성민 기자

韓日 교장문헌 연구 성과 공유하는 자리 마련된다

고려대장경연구소(이사장 종림)는 2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일본 구온지(久遠寺) 문고 및 미노부산(身延山)대학 도서관 소장 교장 문헌'을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모치즈키 가이에 국제일련학연구소장이 '미노부산 소장 논서에 대해서'를, 기무라 주이치 미노부산대학 교수가 '미노부문고 연혁사 연구'를 각각 발표한다. 한국 측 발제자로는 최종남 중앙승가대 교수가 '태현의 보살계본종요 유통본 서지조사 및 대조연구'를, 박용진 능인대학원대학 교수가 '태현선(選) 약사경고적기의 유통과 의미' 등을 각각 살펴본다. 신성민 기자

가야산 · 상왕산 사지 정비된다

서산시, 사찰지 활성화 정비 나서

서산시가 가야산과 상왕산의 옛 사찰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비에 들어갔다.

서산시는 "가야산과 상왕산의 서산 지역에 있는 옛 사찰지 200여개소 중 서산 지역에 있는 88개소에 대한 위치 정보 관측 내역 기록화 사업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가야산과 상왕산에는 백제시대부터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존재했던 많은 사찰과 암자가 폐사됐지만, 석탑 부재들과 와편, 석축 등 많은 유적과 유물들은 흔적을 간직한 채 남아 있다.

특히 보현사지와 수정암지, 백암사지 등에는 석탑 부재 등이 그대로 남아있어 문화재적 가치가 높다.

이에 따라 서산시는 산재돼 있는 옛 사찰들을 조사 · 연구해 위치 정보를 확보하고, 이를 기록화해 역사 · 학술적 가치를 재조명하는 사업을 진행했으며, 불자들과 불교문화재에 관심이 있는 많은 시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확보된 위치 정보를 구글어스에 표시하고 다음맵과 네이버맵 등에 등재할 계획이다.

또한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과 아라메길, 내포문화숲길, 백제 미소길을 연계 활용한 정비사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서산시 관계자는 "백제불교문화특구인 가야산과 상왕산의 중요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노력하겠다"면서 "보원사지와 마애여래삼존상, 해미읍성, 용현계곡, 가야산 일대를 연계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옛 절터들과 등산로를 연계한 코스 개발 등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고 내포 지역만의 특색 있는 관광컨텐츠 개발 등 생태관광과 힐링공간으로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성민 기자

사찰 증축
사찰 개축

■ 가건물
(주차장, 공양간, 창고)

■ 조적, 미장, 마루 일체

■ 불단 샌딩, 법당 샌딩

■ 실내 인테리어 일체

전화 02)990-5121
010-5309-2119

경원 불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높은산고지에서 약사사스님이
3년생 토종하수오를 농사 지어 정성껏 만든
토종하수오 진액을 판매 합니다.

◆하수오의 효능 : 신체노화 방지. 탈모와 흰머리를 검게해주고 모발건강에 효능. 관절염 무릎통증에도 효과. 신장기능을 강화시킴. 허리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압을 강화. 동맥경화예방에 좋은 효능. 염증을 완화. 가래와 담을 제거. 종기나 치질. 만성피로의 개선.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하는 작용. 갱년기에 좋고. 고지혈증. 빈혈. 좋은 건강보조식품이니 드시고 백세인생을 건강하게 사세요.

제품문의 : H·P 010-9692-5775

▸금액 : 150.000원 (무료배송) 50팩

입금 : 농협 351-0450-9156-23 [예금주 : 약사사]

경북 안동시 풍산읍 신양 3리 11번지 대한불교 약사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 2자

◀ 대북

▶ 태징



대한명인 제 14-406호 대고제작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764-2159 / 010-5264-3906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KBS 과학카페



박현숙 원장 출연 (2010. 2. 6)

이강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웰빙 02)523-0708 박현숙 원장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을 치세요.